

---

## 『헌법이 뭐길래? 책봇이 알려줄게!』 독서 활동지

교사용



### ★ 교사용 팁

- 1차시부터 5차시의 ‘질문하며 읽기’는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례 중심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지기 전에 사례를 충분히 함께 읽고, 상황을 함께 상상해 보며 이야기를 시작해 주세요.
- ‘독서 토론’은 소그룹으로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찬반이 나뉘는 주제의 경우, 역할극이나 미니 토론 형식으로 확장해도 좋습니다.
- ‘생각 정리하기’는 활동지에 작성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구두 발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 전, 조용히 개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 학급 게시판이나 교실 뒤편에 ‘헌법 명언판’을 만들어 보세요. 각 차시에서 나온 학생들의 좋은 생각을 모아 소개하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 활동지는 헌법을 일상 속 문제와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 사례와 연결하여 이야기하거나 토론하면 학습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 1

차시

## 헌법, 세상의 규칙을 알려줘!

### ★ 질문하며 읽기

게임을 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규칙’이에요. 규칙이 없다면 누군가는 반칙을 하고,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게임을 공정하게 즐기기 위해 반드시 규칙을 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도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에요.

모두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 빼앗아 간다면?

힘이 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회에서도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그 수많은 규칙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규칙이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은 다른 법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헌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아래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며 헌법의 역할을 살펴봐요.

- 헌법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28p)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법이 없으면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법이 없다면 “이건 내 물건이야!”라고 아무리 말해도 누군가 빼앗아 갈 수 있고, 이를 막아줄 사람이 없겠죠. 또,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 왜 헌법을 ‘가장 높은 법’이라고 부를까요? (19~22p)

헌법의 아래에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어요. 법률은 헌법의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서 만든 거라 헌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또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헌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어요. 법의 체계는 피라미드처럼 총총히 쌓여 있고, 규칙부터 법률까지 모든 법은 헌법이라는 큰 올타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법에 이렇게 위아래가 정해져 있는 이유는 법령이 서로 충돌할 때 위계가 높은 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 독서 토론

- 게임에도 규칙이 있듯, 세상에도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7p)

게임을 할 때 어떤 무기를 쓸 수 있는지, 반칙을 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모두가 공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의 규칙이 필요해요.

- ‘헌법은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는 말에 동의하나요?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41~42p)

각 나라의 헌법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역할을 정한다는 점에서 비슷해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결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과 권리를 보호하고 더 다른 사회를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 자신과 이웃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처럼 헌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과 국민의 가치를 담은 소중한 약속이에요.

## ★ 생각 정리하기

- 오늘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헌법이란?’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헌법이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헌법은 강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 주고,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켜줘요. 그래서 헌법을 알고 있다는 건, 내가 가진 권리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 기본권은 왜 중요할까요?

### ★ 질문하며 읽기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넌 여자니까 이 일은 하기 어려울 거야.”

“우리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같이 놀지 마.”

“지금부터 넌 말도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턱 막히고 화가 나겠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누군가가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내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친구이며,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약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면 그걸 막아 줄 든든한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어디에 살든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라에서는 특별한 약속을 만들었어요. 바로 헌법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약속이 바로 ‘기본권’이라는 것이죠. 기본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말하게 해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줘요. 위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권리를 똑같이 누리고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누군가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도 내 삶에 간섭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공부할 기회를 갖는 것도 권리일까, 그냥 운일까?”

“내가 힘들 때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이런 권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기본권은 너무나 당연해서 자주 잊고 살지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띠와도 같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45~46p)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는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이 말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즉 누가 주지 않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바로 이 천부인권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즉, 국가가 만들어서 주는 권리가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헌법이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이 개념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서 등 근대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때 큰 역할을 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선언이 있었고,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는 "모든 인간은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타고났다"고 했지요. 이처럼 천부인권은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출발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들도 바로 이 생각에서 시작된 거랍니다.

- 자유권과 사회권은 어떻게 다를까요?(59~63p, 71~74p)

자유권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사생활의 자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주 · 이전의 자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유권은 "내 삶에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예요.

반면 사회권은 국가에게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교육을 받을 권리,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 같은 게 있어요. 사회권은 "국가가 도와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사회권은 국가에 '도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 ★ 독서 토론

-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75~79p)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본권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절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하지만 이 권리를 이용해 거짓말이나 혐오 표현, 명예훼손 같은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헌법은 ‘공공의 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하고, 그 제한이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함부로 막거나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아요.

정리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하거나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어요. 이런 제한은 오히려 기본권을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답니다.

- 차별을 막기 위한 헌법 조항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53~58p)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공공시설, 혹은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 등도 모두 이 헌법 조항과 관련이 있어요.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개인의 조건을 고려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 평등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점자 교과서를 제공하거나, 장애인을 위해 넓은 화장실이나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모두 이 정신을 따른 거예요. 결국, 헌법 속 평등 조항은 누군가를 특별히 더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돋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차별을 막기 위한 헌법 조항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준답니다.

## ★ 생각 정리하기

-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마음 속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일을 겪었을 때도 조용히 있어야 한다면 세상은 더 나아지기 어려울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잘못된 일에 대해 “이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헌법은 단지 말을 할 자유뿐 아니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온라인에서 의견을 표현할 자유도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표현의 자유가 나를 지켜 주는 권리이자,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 3

차시

## 국회, 대통령, 법원은 무슨 일을 할까요?

### ★ 질문하며 읽기

한 반에 반장 한 명만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장

이 숙제를 정하고, 급식 메뉴도 혼자 고르고, 운동장을 쓸 반도 마음대로 정한다고 해 봐요.

처음엔 편할지도 몰라요. “결정 빨라서 좋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말할 기회를 잃고, 점점 불만이 쌓일지도 몰라요.

“왜 항상 반장이 하고 싶은 대로야?”

“나도 의견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결국 친구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겠죠.

사실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한다면요. 그건 과연 좋은 나라일까요?

우리가 사는 나라에는 대통령, 국회, 법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세 기관은 마치 ‘세 친구’처럼 서로 다른 일을 맡고 있지만, 한 친구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지지 않도록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해요.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이 혼자 법을 만들고, 판결까지 내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꾸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을 내리는데 누구도 제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권력을 나누는 일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누구도 모든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지켜보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함께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세 기관은 따로 움직이지만, 하나의 팀처럼 작동해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 삼권분립은 왜 필요할까요? (86~90p)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몰리면, 그 힘이 남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법도 만들고,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직접 벌주기까지 한다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헌법은 권력을 나누라고 말해요. 입법권은 국회가, 행정권은 대통령이, 사법권은 법원이 맡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세 기관이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면, 누구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어요. 이걸 삼권분립이라고 해요. 삼권분립은 권력이 폭주하지 않게 막고, 국민의 권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 헌법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91~95p, 100~104p, 109~113p)

우리 헌법에는 국회, 정부(대통령), 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있어요.

이들은 각자 다른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요.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입법부'예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일을 해요.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행정부'라고 불려요.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고, 외교·국방·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요.

법을 적용하다가 사람들이 다투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곳이 사법부, 즉 법원이에요. 법원은 갈등이 생겼을 때 공정하게 판단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요.

이 세 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도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면, 더 안전하고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헌법이 말하는 권력 분립의 힘이에요.

## ★ 독서 토론

-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105~108p)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고 큰 권한을 가진 만큼, 잘못된 결정을 막는 견제 장치가 꼭 필요해요.

먼저 국회는 대통령의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탄핵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문제로 탄핵됐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어요.

법원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명령이나 결정이 헌법에 어긋나면 무효로 선언할 수 있어요. 이런 법원의 권한을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이라고 해요.

또한 언론과 시민도 중요한 견제자예요. 언론은 문제를 알리고, 시민은 여론이나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2016~2017년의 촛불시위처럼 시민의 힘은 대통령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회, 법원, 언론, 시민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것, 그게 헌법이 만든 균형의 원리예요.

- 법원이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9~113p)

법원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법부’라고 부르죠. 이때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헌법과 법률이에요.

헌법 제103조는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지시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정부가 판사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판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요.

또한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해요. 만약 누군가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이 그 명령이 헌법에 맞는지 따져 보고 바로잡을 수 있어요.

재판은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고, 판사는 반드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해요. 이처럼 법원이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 ★ 생각 정리하기

- 가장 인상 깊었던 헌법기관과 그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여러 헌법기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법원이에요. 법원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해 주는 곳이에요. 누가 옳은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판사가 직접 결정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판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옛날에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도록 헌법이 판사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어요.

또 법원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잘못된 명령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국민이 받은 피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그 명령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법원은 단순히 싸움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주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4

차시

## 일상 속에서 헌법이 작동한다면요?

### ★ 질문하며 읽기

친구가 SNS에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나요? 누군가를 놀리거나, 혐오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면 그 글은 단순한 ‘의견’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상처가 되고, 법적인 문제가 되기도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걸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건 내 자유야!”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마음껏 말하고,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퍼뜨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언제나 ‘무제한’일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심하게 비난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헌법이에요. 법률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서로의 권리와 자유가 부딪힐 때 어떤 가치를 먼저 지켜야 할지 헌법이 알려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친구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는데, 누군가가 그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면요? “나는 사실을 알린 것뿐이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해를 당한 친구는 그 영상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땐 궁금해지죠. 이건 과연 표현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한 걸까요? 요즘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나의 권리가 존중받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켜주는 게 중요해졌어요. 우리가 올리는 한 마디, 한 줄의 글도 누군가의 권리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나의 권리와 남의 권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해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 헌법은 나의 일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헌법은 멀리 있는 특별한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에도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도, 뉴스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덕분이에요.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차별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도 헌법은 나를 지켜주는 기준이 돼요.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이 아니라, 문제를 판단할 기준이 바로 헌법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헌법은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헌법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법과 규칙 덕분이에요. 그러니 헌법은 거창하고 어려운 법이 아니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늘 곁에 있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온라인 표현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할까요? (128~132p)

헌법 제21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여기에 ‘표현의 자유’도 포함돼요. 이 자유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 SNS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올리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올리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지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에요.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돼요.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혐오 표현을 한다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균형을 지키는 기준이 되어 준답니다.

## ★ 독서 토론

- 댓글 하나에도 헌법이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53~156p)

우리는 매일 인터넷에서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요.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인데 헌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댓글 하나에도 헌법이 깊이 관련돼 있어요.

우리 헌법은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글을 쓸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요. SNS나 유튜브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이 자유에 포함돼요. 하지만 헌법은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댓글에 쓰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악성 댓글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형을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여선 안 된다고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하나도 그냥 쓰면 안 되고, “내 말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해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답니다.

- 학교에서도 헌법이 내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133~136p)

학교는 규칙이 많은 곳이에요. 정해진 교복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듣고, 때로는 휴대폰도 못 써요. 이런 환경에서 “나도 국민인데, 왜 내 자유는 지켜지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가진 적 있지 않나요?

사실 학생도 엄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싶다고 표현했다가 학교에서 제지당했는데, 법원은 그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어요. 또 어떤 학교는 학생이 게시판에 붙인 글을 이유 없이 철거했는데, 인권위원회는 그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권리가 항상 100%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는 많은 학생이 함께 지내야 하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쓰고 싶은 마음도 이해되지만,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면 학교는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단, 그 제한이 정말 필요한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제한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큰지를 따져봐야 해요.

헌법은 학교 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준이에요. 하지만 권리를 주장할 땐, ‘책임’도 함께 생각해야 해요.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건, 동시에 다른 친구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학교에서 헌법은 ‘나만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규칙’을 만들어 주는 거랍니다.

## ★ 생각 정리하기

- 내가 겪었던 일 중 헌법과 관련 있다고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적어 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도 헌법과 닿아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다르게 생각해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건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어요. 또 어떤 규칙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 건의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활용한 경험이에요.

혹시 친구나 선생님의 말에 상처를 받아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땐 인격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떠오를 수 있어요. 또는 쉬는 시간에 휴대폰 사용이 제한된 경험에서 “내 자유가 너무 제한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그 또한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느낀 거예요.

이처럼 ‘그냥 지나친 일’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생각해보면 헌법과 연결된 경험일 수 있어요. 내가 겪었던 일을 떠올려 보고, 어떤 권리와 관련 있는지 천천히 정리해 보세요.

## 헌법,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 ★ 질문하며 읽기

'헌법'이라고 하면 뭔가 단단하고 고정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바꿔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손댈 수 없는 커다란 규칙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헌법도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었고,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치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정치는 어른들만의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 당연함에 "왜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때론 외면받고, 때론 저항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었고, 헌법도 함께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권리들은 누군가의 치열한 목소리와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부당함, 혹은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하는 의문들은 헌법과 무관할까요?

혹시 지금의 헌법은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을까요? 만약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헌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해 볼게요.

- 헌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요? (166~169p)

헌법은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 헌법은 모든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인터넷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헌법은 표현의 자유도, 다른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도 모두 소중하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충돌이 생기면 헌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법원의 판결이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요.

또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악, 그리고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새로운 문제들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나 제도가 필요해요. 독도 문제처럼 나라 간 분쟁이나, 기후 변화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어 주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헌법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출발점’이에요. 바로 그 점이 헌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예요.

- 청소년의 목소리가 헌법에 담길 수 있을까요? (178~182p)

지금의 헌법은 어른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의 일상이나 생각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헌법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그 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도 있답니다. 예전엔 여성이나 청소년에게 투표권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헌법도 바뀌고 권리도 넓어졌어요. 지금도 청소년이 참여하는 모의 국회나 청소년의회 활동처럼, 헌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조항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목소리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의 규칙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도 헌법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작은 행동 하나가 헌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 ★ 독서 토론

- 민주적 헌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0~173p)

헌법이 있다고 해서 모두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가 헌법을 만들었는지, 그 헌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예요.

1871년 독일은 통일하면서 헌법을 만들었지만, 왕과 귀족이 만든 헌법이었어요. “주권은 왕에게 있다”는 조항 아래, 행정·입법·사법 권력 모두 왕에게 집중돼 있었고, 국민의 권리라는 거의 없었죠. 결국 지도자들이 독단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어요. 만약 국민이 정치에 참여했다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본도 비슷했어요. 1889년 메이지 헌법에는 모든 권력이 천황에게 집중돼 있었고, 국민의 권리는 천황이 원하면 언제든 제한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일본은 주변 나라를 침략하며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민주적 헌법이 없다면 국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몇몇 권력자의 결정 하나로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단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민주적 헌법’이어야 해요. 이것이 국민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장치니까요.

- 헌법은 완벽할 수 있을까요? (174~177p)

완벽한 슈퍼히어로가 없듯, 완벽한 헌법도 없어요. 아이언맨이나 배트맨도 실수를 하듯, 헌법 역시 시대에 따라 부족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헌법도 1987년을 포함해 여러 차례 바뀌었고, 미국이나 프랑스도 꾸준히 헌법을 고쳐 왔어요. 세상이 변하면 법도 달라져야 하니까요. 물론 헌법이 너무 자주 바뀌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변화는 신중하게, 하지만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뤄져야 해요.

헌법은 완벽하진 않지만,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여성이나 청소년의 권리가 확장된 것도 그렇게 변화해 온 결과예요. 중요한 건 지금 헌법이 얼마나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변화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 ★ 생각 정리하기

- ‘내가 바꾸고 싶은 헌법 조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지 적어 보세요.

예전에는 여성이나 흑인에게도 투표권이 없던 시절이 있었지만, 헌법이 바뀌면서 그들의 참정권이 점점 확대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조항이 헌법에 생기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이 지역 사회 문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청소년 자문제도’를 헌법에 담는다면, 우리를 위한 정책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함께 만드는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 ‘헌법은 나에게 ○○○이다.’라는 완성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적어 보세요.

- 헌법은 나에게 ‘보호막’이다.

위험하거나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법의 방패예요.

- 헌법은 나에게 ‘목소리’이다.

비록 아직 투표권은 없지만, 내 생각과 권리가 중요하다는 걸 세상에 알릴 수 있게 해 줘요.

- 헌법은 나에게 미래의 ‘설계도’이다.

지금은 배우는 중이지만, 나중에 내가 바꾸고 지켜야 할 세상의 규칙이니까요.